시방세계 '自性佛' 통도사에 나투다

통도사 '영축문화축제' 9월 19일~10월 17일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 2016년 개산대재는 '큰 절 문을 열다-시방세계 부처님 통도사 나투시다'란 주제로 개산대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아 9월 19일~10월 17일 열린다.

주제 가운데 '시방세계 부처님'은 자성불(自性佛), '당신이 곧 부처님'을 의미한다. 이는 〈범망경〉의 '대중은 마음을 다하여 믿으라. 너희는 당래에 이룰 부처요 나는 이미 이룬 부처이니'란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참가대중들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나무 OOO 불'이라고 개인 축번에 적고 괘불대전이 열리는 무풍한송로 거리에 건다.

괘불대전은 통도사의 특별 전시로, 한국의 산사 괘불탱 가로 3m 세로 5m 크기의 대형 실사 33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다. 33개의 숫자는 삼십삼천(三十三天)을 의미하며 길을 따라 양쪽 모두 설치하면 66개의 괘불탱으로 낮과 밤, 24시간, 시방세계를 뜻한다. 괘불대전이 열리는 이 무풍한송로 거리서 괘불이운식이 열리며 참가대중들이 이운식 때 직접 꽃을 뿌리고 부처님의 나투심을 축하하는 대장관을 연출한다.

괘불대전은 영축문화축제 기간 동안 10월 1~17일 까지 만날 수 있으며 괘불이운식은 10월 8일 오전 9시 산문 주차장에서 시작해 보행로, 일주문, 괘불대에 도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통도사는 앞으로 괘불 이운식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월 2일 오전 10시 해장보각서 '통도사 개산대재의 문화적 가치'를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윤영해(영축불교문화연구소 자문위원), 한상길 교수(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혜일 스님(영축불교문화연구소 자문위원), 덕문 스님(통도사 율원장)이 △개산대재에 관한 역사적 고찰 △자장율사와 문수사리 신앙 △이운의식의 신앙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 △다례제에 관한 문헌적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괘불대전, 66개 괘불탱 전시
자성불 개인 축번 함께 걸어
대중 꽃 뿌리는 장관 연출
불교문화 향연 볼거리 넘쳐

이번 영축문화축제는 개산대재의 과거 · 현재 · 미래로 나눠 진행한다.

'개산대재의 과거'는 자장율사가 1371년 전 통도사를 창건한 뜻을 기리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이다. 자장율사의 가사를 친견하고 괘불헌공 및 괘불이운, 영고재, 봉축 법요식이 열린다.



통도사가 개산대재를 맞아 9월 19일~10월 17일 영축문화축제를 마련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1일 자장율사 영고재 모습.

2016 통도사 개산대재 세부일정

일 자	시 간	장 소	주요내용
9월 19일~10월 10일	오전 9시	도량내	오색초롱등 장엄
9월 26일~10월	오전 9시	도량내	국화 장엄
9월 29일~10월 16일	오전 9시	총림문~박물관	양산축제
10월 1일~10월 17일	오전 9시	보행로(무풍한송로)	괘불대전
10월 8일	오전 9시	산문 주차장→보행로(무풍한송로)→일주문→괘불대	괘불이운
	오전 10시30분	괘불대	괘불헌공
	14시	부도전	부도 헌다례
	15시	부도전	들차 시음회
10월 9일	오전 9시	해장보각	영고재
	오전 10시30분	설법전	봉축법요식
	오전 11시	설선당 앞 마당	만발공양
	13시	설선당 앞 마당	청소년댄스 경연대회

'개산대재의 현재'는 사부대중이 직접 참여하고 축제를 누리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부도 헌다례, 국화장엄, 만발공양, 오방색 초롱등 오색장엄을 만날 수 있다. 매년 부도헌다례는 다인(茶人)들이 부도탑에 차를 올렸다. 올해는 특별히 학인 및 강원 그리고 한주 스님들이 직접 부도탑에서 헌다를 한다. 통도사는 "14기에 모신 선지식들의 제자들이 생존해 있어 이번 헌다의식도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승을 기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산대재의 미래'는 인재 불사로 청소년 포교 활동을 위한 노력으로 영축장학금 전달 및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를 열어 특별상, 대상 등 상금도 전달한다.

영축문화축제 전체 일정은 9월 19일 오전 9시 부터 오색초롱등 장엄으로 시작해 9월 26일에 화엄세계를 상징하는 화려한 국화가 도량을 채운다. 9월 29일~10월 16일 양산축제도 열린다. 양산 지역의 이름에서 발췌한 '양산'을 모티브로, 우산과 양산에 불교전통 문화인 단청문양을 그려 넣어 통도사 총림문에서 박물관 사이에 설치한다. 총 1100개의 우산에 그려진 단청문양은 모두 전문가가 직접 수작업으로 작업했으며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됐다.

가장 중요한 개산대재는 10월 8~9일 동안 개최되며 8일에 괘불이운, 괘불헌공, 부도헌다례, 들차 시음회가 마련되고 9일에는 영고재, 봉축 법요식, 만발공양,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를 만날 수 있다.

주지 영배 스님은 "개산대재를 통해 아름다운 불교문화를 보여줄 예정"이라며 "영축문화축제는 불자 뿐 아니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불교 행사로 마련됐다. 앞으로 개산대재 행사의 모델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기획이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자비의 쌀 전달

무료급식소 11곳에 쌀 1100kg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박대성)는 9월 6일 조계종 해운정사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자비의 쌀 1100kg은 불교계 무료급식소 11곳에 각각 100kg 씩 전달된다.

박대성 회장은 "부처님은 가난과 질병 등 소외되고 가난한 중생을 위해 진리의 법륜을 펼쳐 보이셨다. 그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불국정토가 되는 그 날까지 복지 불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달식 후 진행된 부산불교연합신도회 9월 정기법회서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은 "선한 일 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며 덕을 쌓는 것과 함께 수행을 통해 지혜를 닦는 것에도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9월 6일에 조계종 해운정사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불교 총지종, 제5회 통일음악예술제

10월 1일, 부산 동해중학교

불교 총지종은 '제5회 통일음악예술제'를 10월 1일 오후 5시 30분 총지종 종립 부산 동해중학교 운동장 상설무대서 개최한다. '그치지 않는 통일의 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통일음악예술제는 기존의 공연 위주 무대를 벗어나 부산지역 사찰 합창단 5개팀이 동참하는 경연으로 열린다.

참가 합창팀은 관음사 환희합창단, 금강감 금소리 합창단, 범어사 합창단, 진각종 유가 합창단, 혜원정사 합창단 등이다. 경연을 축하하는 의미로 총지종 합창단이 특별출연하며 난타, 퓨전 병창, 비보이 공연, 평양예술단의 무대도 마련된다. 마지막 순서에서 참가자들은 '소원 LED 풍선'에 소원지를 작성해 붙이고 함께 날리며 통일을 기원한다.

불교 총지종은 "불교 합창단들이 기량을 선보일 무대가 부족했던 것이 안타까워 마련했다"며 "모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대중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합창제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1회 국제 '학춤' 축제

9월 23일~25일 서운암서

통도사 서운암(감원 성파)은 9월 23~25일 '제1회 국제 학춤 페스티벌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메인 행사는 24일 오전 9시 국제세미나로 문을 열어, 오전 10시 장경각 헌다가 진행된다. 국제 학 세미나는 오전 11시에 시작, 오후엔 차시연 및 통도사 학춤 전승자 백성 스님의 학춤 공연, 산사음악회 등 무대가 마련된다.

학술세미나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두루미 학자인 마사토미 히루유키 교수, 러시아인으로 국제두루미재단에 소속된 엘레니 일리아센코 등이 참여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통도사 서운암 감원 성파 스님을 비롯해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이우신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김진한 국립생물자원관 동물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운암은 "통도사 학춤 세계화 추진 및 문화재 등재를 목표로 두고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어플 다운만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요!

(주)벤폴, 첫 캠페인 출발 '아동학대 반대'

"함께 잘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불국토를 꿈꿉니다. 30대 초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불교를 만나 자주 들었던 말이 온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며,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란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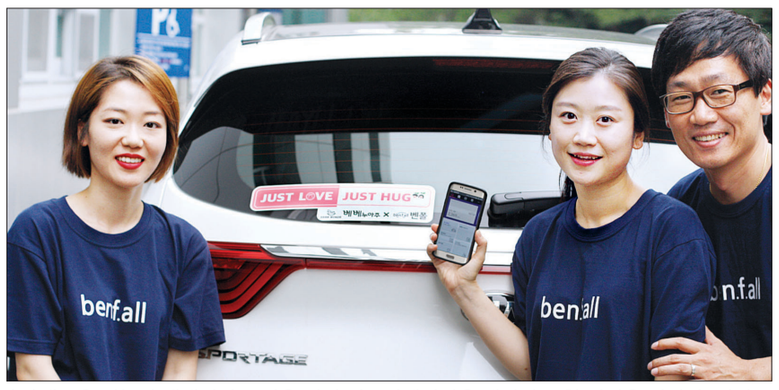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어플 '벤폴'이 출시된 이유다. 이미주 (주)벤폴 대표이사는 '벤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벤폴은 '베네핏 포 올(benefit for all)'의 약자로 모두가 이득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탄생됐다.

벤폴 캠페인은 스마트폰이 있으면 누구나 동참 가능하다. 어플을 다운받아 등록하고 원하는 캠페인에 참여신청하면(주)벤폴이 캠페인에 필요한 차량 부착 스티커를 보낸다.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캠페이너로 등록되는 시스템이다.

캠페인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포인트를 지급받아 일상생활 가운데 편의점, 커피숍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 1만점을 받는다. 캠페이너들은 받은 포인트를 손쉽게 어플을 통해 기부할 수 있어 나눔 활동에도 동참 할 수 있다.

이미주 대표는 "기업이 사회적 문제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가 상승하고 캠페인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현금처럼 포인트를 받으니 더욱 신이 날 꺼라 생각한다. 특히 캠페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한 사람 당 기업서 기부금을 사회에 환원한다"며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나눔을 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벤폴은 나눔과 캠페이너 모집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첫 시작을 알렸다. 이미주 벤폴 대표(가운데)와 직원들의 모습.

일반인들이 캠페인이나 광고를 보는 행동을 넘어 차를 활용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사회에 일정 수익이 환원되는 공유서비스인 것이다.

벤폴의 첫 캠페인은 어린이 학대 반대다. 첫 번째 공식 후원처는 불자 기업으로 알려진 (주)따꼬(대표이사 진상표)로 베베누아주 친환경 유아 건티슈를 제작하는 곳이다. 캠페인 기간은 8월 26일~9월 30일이다.

이미주 대표는 "현재 벤폴 홍보 방법으로 개인 차량이 이용되지만, 앞으로 스마트 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며 "이번 첫 공식 캠페인을 통해 알로이시오힐링센터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센터에 필요 물품을 10월 중에 전달 할 것"이라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